

숨은그림찾기 <73>



찾아보세요 고추, 알파벳 A자, 새, 촛불, 셔플룩, 열대어, 송곳, 종이배, 자물쇠

아이 이름을 '골프'라 짓는다?

아무리 해도 골프가 되지 않을 경우 골프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갈 가는 기계를 사다 놓고 매일 칼을 간다. 갈 칼이 없을 때는 동네 칼을 다 갈아 주면서 부업도 한다.

②고개는 절대로 들지 않는다. 누가 부르면 천천히 돌아본다. 헤드 업 방지는 물론 가끔 돈도 주위 황재할 수 있다.

③목욕탕에 가면 절대로 온탕과 냉탕에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지 않는다. 가능한 한 탕에 들어가서 쉬고 샤워만 하는 것이 좋다.

④ 아이 이름을 골프, 고무부등으로 짓는다. 그러면 자기는 골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지나주 정답

셔플룩, 제비, 새집, 송사리, 고추, 열대어, 멧돼지, 바늘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안진모 <해남군 해남읍> 이인정 <광주시 서구 유촌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29년 오늘,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40년·9개)', '벤허(1959년·11개)', '스팅(1974년·7개)', '원들러리스트(1993년·7개)', '타이타닉(1998년·11개)', '반지의 제왕-왕의 귀환(2004·11개)'의 공통점은 뭘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7개 부문 이상을 휩쓴 작품들이다.

매년 3월이면 영화관들을 들쭉거리게 하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할리우드 영화계가 갖는 파괴력과 스타성 때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정식 명칭은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상으로, 전년도에 개봉된 미국 영화 및 미국에서 상영된 외국영화를 대상으로 해마다 봄철에 시상한다. 세계 각국의 영화들이 경쟁하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는 달리 미국 영화 위주로 상을 주는 탓에 할리우드만의 잔치다.

미 영화인들의 결속을 다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 1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초라했다. 지난 1929년 5월 16일 할리우드 내 루스벨트 호텔에서 열린 1회 시상식은 4분22초만에 끝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석자는 270여명. 할리우드 스타 배우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총출동해 시상식장을 화려하게 수놓으면서 3시간 넘도록 생중계되는 오늘날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수상자도 3개월전 발표된 탓에 긴장감이 없었다. 첫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제넷 게이너, 남우주연상은 에밀 재닝스가 수상했다. 특별상은 찰리 채플린.

친목 모임 수준의 시상식은 79년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제 2회 시상식부터 라디오 중계가 됐고 1952년 TV 중계가 시작됐고 1969년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초창기 12~15개였던 수상 분야는 오늘날 24개로 늘어

났고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흥행성 높은 축제가 됐다.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비밀투표 방식은 1941년 도입됐고 투표 결과는 시상식장에서만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오스카'라는 애칭의 트로피를 수여한다. 높이 34cm, 무게 3.85kg의 이 황금빛 트로피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직원이 트로피를 보고 "내 삼촌 오스카 아저씨를 닮았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다소 황당하지만 이 상은 이제 모든 배우들의 목표이자 명예로 여겨졌고 시상식은 할리우드 최고의 잔치가 됐다. 수상 후보자만 돼도 전 세계 극장에 내걸린다.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 후보에 오를 날은 언제일까.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제1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있는 제넷 게이너(오른쪽).

뉴스퀴즈

64. 미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한국인 1호 타자인 이 선수가 고향 구단인 KIA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KIA는 최근 이 선수와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 5천만원, 옵션 4억원 등 최대 15억5천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빅쇼이'로 불리며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에 출장해 홈런 40개 등 타율 0.240(915타수 220안타) 120타점, 130득점을 기록한 이 선수는 누구 일까요?

① 최희섭 ② 박찬호 ③ 이병규 ④ 이승엽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6일(음 3월 30일 庚戌)

36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야 후진이 빠르리라. 48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60년생 마음의 문을 열면 희망도 보인다. 72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4년생 이왕 출발했으면 얻은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돌진하라. 행운의 숫자: 07, 40

37년생 단순한 방법이 지름길이다. 49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 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61년생 자신의 입을 조심하라 스스로 만든다. 73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85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05, 26

38년생 과거에 연애지 마라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50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62년생 대부분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74년생 좋은 생각은 실패한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14, 38

39년생 작은 것이 소중하니 오히려 주의하라. 51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공정을 받으려 더욱 분발이 필요하다. 63년생 필요한 금액만 구매로 소비가 생긴다. 75년생 생김 돈보다는 소비가 크다. 행운의 숫자: 21, 25

40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버려라 손재가 크다. 52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지만 좋은 일이 더 많다. 64년생 멀리서 귀가 찾아온다. 76년생 代價가 없는 인덕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08, 37

41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되리라. 53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65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항하라. 77년생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니 제사에 철저히하라. 행운의 숫자: 11, 34

42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54년생 다루지 말고 협상과 응징과 칼자루를 쥐었다. 66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혹하지 마라. 78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금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01, 35

43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5년생 단속을 할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67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79년생 소원했던 여자 친구에서 연인이 온다. 행운의 숫자: 19, 31

44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해도 비켜간다. 56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행하리니 지나라. 68년생 심년 목은 재물이 내려간다. 80년생 빛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04,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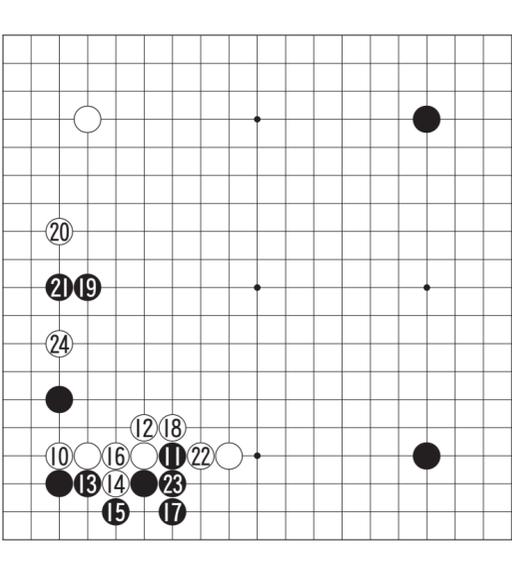
45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57년생 마음을 비우려 오히려 채워진다. 69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보라. 81년생 밖의 일은 아랫사람에게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잘 챙겨라. 행운의 숫자: 17, 29

46년생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58년생 용기 있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70년생 아침은 즐거우나 오후는 무료하다. 82년생 주변의 이성에 인기가 상승한다. 행운의 숫자: 03, 45

47년생 오래된 문서가 큰 재물로 변한다. 59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71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83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앞매이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09, 36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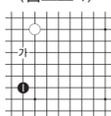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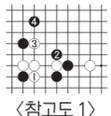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제16회 광인백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어려운 길

2보(10~24)



백 10쪽에서 막은 것은 전부를 좋아하는 김광식 5단의 취향이다. 그런가 하면 김영수 5단도 매우 호전적인 스타일이다. 13으로 넘지않고 기세 좋게 11로 찢혀간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김광식 5단은 고심 끝에 12로 늘고 말았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1'의 백 1로 막아버는 것이 기세였다. 흑 2로 찢혀오면 3으로

블어 일단 귀를 차지하고 싸우게 된다. 흑 13으로 넘어가서 11로 한번 찢혀둔 효과와 눈에 띈다. 이 결과는 백의 세력에 비해 흑의 실리가 돋보인다. 게다가 백 18로 막지않을 수가 없어 19로 좌변을 벌려가서는 흑 성공의 갈림이다. 다만 흑 19로는 '참고도2'의 흑 1로 벌리고 싶다. 그런 다음 '가'와 '나'를 맞보면 실전보다 편하다.

실전은 백20으로 조이고 24로 쳐들어와 진흙탕싸움에 말려들어 어려운 길로 들어섰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김광식 5단 (주)송림,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원성진, 천원전서 김해민 제압

원성진 7단이 15일 서울 스카이라이프 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 16강전에서 김해민 4단을 14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8강전에 진출했다.

원 7단은 이 승리로 이영구 6단과 함께 올해 29승 8패를 기록하며 목진석 9단(36승 6패)에 이어 다승부문 공동 2위에 올랐다.

원 7단은 최철한 9단·이희성 7단 대국의 승자와 4강 진출을 다룬다. 이 대회는 모두 16명이 토너먼트를 벌여 결승 5번기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 우승상품은 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05>

What are you going to have? 무얼 드시겠습니까?

A: What are you going to have, Tim? B: What do you recommend? A: Well, their fried chicken is delicious. B: Then I'll try that. A: And beer? B: Yeah, they go well together.

A: 뭘 먹고 싶니, 팀? B: 넌 무얼 권할거니? (추천할거니?) A: 음, 여기 프라이드 치킨 맛이 정말 좋아. B: 그럼 그걸 먹어봐야겠다. A: 맥주는? B: 좋아. 그렇게 같이 먹는게 좋지.

What are you going to have?(무엇을 먹을거야?) = (좀 더 정중한 표현) What would you like to have? go well : 잘 어울리다 recommend : 추천하다 I'll try that :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delicious : 맛있는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905>

もう少し自肅(じしゅく)してほしいですね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군요

A: どの電話ボックスもテレクラの貼紙(はりがみ)だらけですね. B: 風俗産業(ふうぞくさんぎょう)の發達で、子供たちにも大きな影響(えいきょう)があると思いますよ. A: そうですね. もう少し自肅(じしゅく)してほしいですね. B: それに家庭教育(かていきょういく)も重要だと思えますけど.

A: 어느 전화 박스에도 전화방 전지문 투성이군요. B: 풍속 산업의 발달로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 그렇습니다. 조금 자중했으면 좋겠군요. B: 그리고 가정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テレクラ: 전화방 貼紙(はりがみ): 벽보 ~だらけ: ~투성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96>

你的韩汉词典呢 너의 한중사전은?

A: 你的韩汉词典呢? Ni de Hánhán cǐdiǎn ne? 니 더 한한 츠디엔 네? B: 词典在桌子上. Cǐdiǎn zài zhuōzi shàng. 츠디엔 짜이 쉼위즈 상. A: 桌子上没有. Zhuōzi shàng méiyǒu. 쉼위즈 상 메이 여우. B: 你看看抽屉里有没有? Nǐ kànkàn chōutí lǐ yǒu méiyǒu? 니 칸칸 처우티 리 여우 메이 여우?

A: 너 한중사전은? B: 책상 위에 있어. A: 책상 위에 없어. B: 사람 안에 있어 없어?

韩汉词典 [hánháncǐdiǎn] 한중사전 抽屉 [chōutí] 서랍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22>

貓項懸鈴(묘향현령) 고양이 목, 목 향, 매달 현, 방울 령

묘향현령(貓項懸鈴)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뜻으로 묘두현령(貓頭懸鈴)이라고도 한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공언해 꾸미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은 처음부터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한다.

쥐들이 늘 고양이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살면서 모여 의논을 하였다. "노작가리를 뚫고 쌀광 안에 들어가 살면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두려운 것은 오직 고양이 뿐이다." 라고 하니, 어떤 한 마리의 쥐가 이야기하길, "고양이 목에 만약 방울을 단다면 아마도 소리를 듣고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쥐들이 기뻐 날뛰면서 말하길, "그대의 말이 옳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어떤 큰 쥐가 천천히 말하길 "옳기는 옳으나 고양이 목에 누가 우리들을 위하여 방울을 달수 있겠는가?" 하니, 쥐들이 움찔하였다. (荀五志)

쥐들의 처지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는 그야말로 '타상공론(卓上空論)'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시도조차 안하는 무사안일(無事安逸)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도전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